

여수엑스포 도로망 큰일났다

SOC 예산 대폭 깎여 주요도로 개축 이전 개통 의문

지역정착권 예산 추가 확보 총력전 나서야

1년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도로망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여수 엑스포 개최 이전에 완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착권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이번 예산 국회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 SOC 투자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박람회 유치 결정 이후,

예산 요구액은 7조2201억원이었으나 반영액은 5조3247억원(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국고 예산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 1조552억원을 요구했으나 최종 반영액은 8836억원에 그쳤으며, 특히 여수 박람회장 연계 도로망 확충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영남권 관광객들이 여수 박람회장을 찾을 수 있는 중추 도로인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총 사업비는 1조501억원이지만 올해까지 5137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쳤으며 내년 예산도 2000억원만 반영, 엑스포 개최

이전 완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충청권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주~광양 고속도로'는 마무리 사업 예산 432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박람회 개최 직전까지 연장 공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목포~광양 고속도로'도 사업비 2조1321억원 가운데 1조6231억원만 투입됐으며 내년 예산도 2305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라서 여수 엑스포 개최 이전 개통은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사내 도로 확충은 차차체 소관이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특단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엑스포 기간 동안 여수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수시의 운행 차량은 10만대 전후로 평소에도 차량 정체가 극심한데

다 엑스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만~6만대에 달하는 외지 차량이 유입될 전망이다. 또한, 여수공항과 여수항을 통한 관광객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여수 엑스포 연계 도로망은 최소한 박람회 개최 이전에 반드시 완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열린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SOC 부실성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정현 의원은 "2012년 5월 여수엑스포 개최 이전에 관련 SOC를 완공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만약, 도로망 확충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제적 위상 실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능 기원 시루떡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회장 김종일) 회원들이 16일 광주제일고 3학년 교실에서 '수능대박'을 기원하는 시루떡을 전달하며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이날 후배들의 고득점을 바라는 동문의 뜻을 모아 3학년 전 학급에 떡을 선물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U대회 선수촌 다시 탄력

두산·금호·코오롱 등 8개업체 제안서 제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에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오면서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재건축조합이 분양가를 애초 설정했던 평당 700만원 이상에서 650만원

으로 대폭 낮춰 미분양 가능성을 줄이자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6일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시한인 16일까지 두산·금호·코오롱·삼한기업·동양건설산업·한일·양우건설·동아건설산업 등 8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현대·KCC·대우 등 3개 업체

는 19일까지 내겠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1개 업체가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에 뛰어들면서 3~5개 업체로 2~3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돼 선수촌 건립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조합 측은 사업규모가 큰 만큼 각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기존 3개 업체에서 최대 5개 업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컨소시엄은 다음주 안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조합은 시공단가와 분양가 등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컨소시엄을 선택할 방침이다.

정삼도(53) 재건축 조합장은 "삼성·대림·한양 컨소시엄에서 미분양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한 이후 주민들과 여러 차례 속의해 주민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주민들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과 주민분양에 차이를 두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비금 작은대섬 '화산성구조' 천연기념물 예고

문화재청은 16일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 구조'(8421㎡)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무인도인 작은대섬은 중생대 백악기 말 한반도 남부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뜨거운 화산재 등이 부서져 가루 형태로 흐르다가 차갑게 식어 갈라진 냉각절리(冷却節理), 그 절리를 다시 채운 화산재가 굳어 생긴 응회암(凝灰岩), 물결무늬인



유문암(流紋巖) 등 다양한 화산성(火山性)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지질학적 특징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타의 남해안에서 발견되는 응회암 발달 형태와도 달라 화산 활동의 중요한 연구 자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태환 또 해냈다...400m 금



16일 광주우시 아오티 아쿠아티센터에서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한 박태환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www.kgrc.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11.04~12.02
 고구려대학 입학문의 091-330-7323-5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12월17일~22일
 가 군원사접수
 각대학원 원사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남부대학교 대학원 **전기 석·박사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 교육대학원 · 보건경영대학원
 원서접수 11월 19일(금) 면접 11월 26일(금)
 남부대학교 | 062-970-0040~7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10탄
 김성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도시와 비엔날레의 관계'
 ※ 선착순 100명·무료
 19일(금)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촉촉함이 깊어져요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언제부터가 매일 바르던 보습제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과 만나보세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보다 생명력 넘치는 깊은 바다의 마린 에너지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 피부 깊숙이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바를수록 깊어지는 촉촉함을 느껴보세요.

- 마린 플라센타* 콜라겐을 함유하여 피부에 닿는 순간, 미세입자 풍부한 해양산성수소와 심해의 보습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수분막을 형성합니다.
- 피부 구성성분과 유사한 탄수화물 복합체, 자당성분 등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입니다.

LIRIKOS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이력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 구입처 문의: [종로점] 무주점 062-225-5056 / [전남점] 광주점 062-222-5005 / 상무지사 062-228-8048 / 중랑지사 062-573-8802 / 광주송정지사 062-245-6666 [전남점] 목포지사 061-205-2007 / 순천지사 062-222-0155 / 여수지사 061-832-0614 [전북점] 군산지사 063-468-3173 / 전주지사 063-286-0636 / 호남제일지사 063-279-2010